

第213回國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7月7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노동부소관
- 2. 최근노동현안

審査된案件

-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 1  
가. 노동부소관 ..... 1
- 2. 최근노동현안 ..... 26

(12시05분 개의)

○委員長 劉容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국회 임시회의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申世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07분)

○委員長 劉容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좀더 심도있게 깊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6인으로 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6인의 명단을 보고하면 양쪽 교섭단체에서 신청하신 위원 명단은 한나라당의 金樂冀 위원, 吳世勳 위원, 李柱榮 위원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에서는 李相洙 위원, 韓明淑 위원, 李浩雄 위원 이렇게 세 분입니

다. 그래서 도합 여섯 분으로 하고 심사소위원장에는 金樂冀 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여야간 합의된 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할까요?

○小委員長 金樂冀 예.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노동부소관

(12시09분)

○委員長 劉容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노동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존경하는 劉容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도 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업대책 사업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 시책에 커다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심으로써 노동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사정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실업률 추이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평균 실업률은 6.3%였으며 금년 5월 말 현재 3.7%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도 IMF 이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편이고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대 청소년 실업률은 9.3% 수준으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실업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신규 학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경우 청소년 개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실업 완화를 위해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일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12억원으로 당초예산 6,330억원보다 4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청소년 미취업자의 현장경험 제공과 정규직 채용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실시에 390억원,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전문가, 국제무역사 등 취업 유망분야의 직업훈련 확대 실시를 위해서 90억원, 청소년, 여성실직자 등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훈련 확대 실시에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劉容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 대로 반영되어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청소년 실업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예산요구 개요를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기본 방향에 이어서 추경예산 총괄과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편성기본 방향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실업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5월 청소년 실업률은 9.3%, 19만5,000명으로서 전체 실업률 3.7%의 2.5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률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 및 이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 부는 청소년 고용안정 대책 지원을 위해서 총 48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대상사업 중에서 저희 노동부 소관 주요사업은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 실시에 390억원, 취업 유망분야 훈련실시에 90억원, 청소년 사이버 훈련을 강화하는데 2억원입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 금년도 예산액 14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은 당초 편성된 6,330억4,400만원에 이번에 482억원을 증액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8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고용안정대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2000년도 예산액 800억원에 48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는 1,2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에 389억8,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039억8,200만원이 됩니다. 또 취업 유망분야 훈련 실시에 당초 편성액 150억에 90억원이 증액되어서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버 훈련에 새로 2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이번 추경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미취업자의 현장훈련 경험 제공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인턴제 확대 시행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3개월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혜인원은 당초 4만2,000명에서 1만4,600명이 추가된 5만6,600

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반영내역은 650억 원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389억8,200만원으로서 연수기간 지원에 219억원, 정규직 채용시 지원하는 17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는 무슨 말입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정규직 채용 시에 우선 3개월 기간은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정규직으로 그 사람을 기업에서 채용하면 다시 3개월을 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면 더 이상은 안 해 줍니다.

○李相洙委員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받는 월급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이와 같이 정부지원 인턴제 소요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1,040억원으로서 이번 추경으로 389억 8,2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5페이지 취업 유망분야 훈련 확대 실시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전문가, 국제무역사 등 취업 유망직종에 대한 훈련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훈련비 40만원과 훈련수당 평균 10만원 이렇게 해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훈련인원은 당초 계획 5,000명에서 3,000명이 추가된 8,000명으로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반영된 2000년도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액은 90억원으로서 훈련비 6개월간에 소요되는 72억원, 훈련수당 6개월에 해당되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 청소년 사이버 훈련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여성근로자, 실직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상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신지식 기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훈련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훈련과정은 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10개 과정을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리눅스 등 318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서 지원내용은 인터넷훈련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당초 3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2만 5,000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0년도 예산에는 청소년이 아닌 실업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4억8,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가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 사이버훈련을 새로 추가해서 이번 추경예산액에 2억1,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콘텐츠 개발에 1억원, 훈련용 서버 구축비에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과 그 예산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노동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昌熙 전문위원입니다.

노동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 노동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7,538억원, 의약분업에 2,302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래 표 1과 같이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에 약 390억원, 취업유망분야 훈련실시에 90억원, 청소년 사이버훈련 강화에 약 2억원 등 청소년 고용안정지원사업만으로 482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액 482억원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2조4,000억원의 2%로 그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겠으나 당초 노동부소관 예산 6,509억원의 7.9%로 이는 정부재정규모의 증가율 7.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소관은 아니지만 청소년실업대책으로 482억원 이외에 1,631억원과 공공근로사업 1,5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로서 실업문제가 아직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0년5월 현재 9.3%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특성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99년 말 4.8%에 이른 실업률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5월 현재 3.7%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특성별 대책이 필요한 분야로 청소년층만이 고려되고 그밖에 장기실업자나 일용근로자,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의 실업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배제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보호문제가 오히려 배려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7월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노동관계법의 확대적용으로 인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반영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검토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인턴제는 청소년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모집하여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 예산에 65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60%에 해당하는 390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당초예산 650억원은 청소년 미취업자 2만2,000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3개월을 추가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에는 이월예산 305억원을 합한 955억원으로 4만2,00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 390억원은 추가로 1만4,600명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동 사업은 편성기본방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실업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실업률은 높은 상태에서 2000년3월 말 현재 인턴 신청자 7만7,000여명 중 미참여자가 3만4,000명이 존재하는 등 인턴제에 대한 수요가 있고 높은 청소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인력손실, 사회문제화,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당초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8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라는 표 3에서처럼 99년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과정에서 중도탈락률의 과다, 정규직 채용률의 저조, 대기업 위주의 예산배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예산심의과정에서 200억원이 삭감된 바 있으며 따라서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동 사업의 2000년도 지원조건은 3개월 지원 후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지원으로 이는 정규직 채용조건과 관계없이 6개월을 지원하던 99년도에 비해 지원조건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지고 아래 표 5에서처럼 정규직 채용률이 99년의 57.5%보다 높아진 것은 국가경제 전반의 호조와 함께 사업시행 주체를 대학에서 지방노동관서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인턴제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대졸자 등의 채용이 증가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인턴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시혜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규직 채용률 84.9%는 3개월 연수 후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6개월 이후의 이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노동부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문제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일면 단기적인 청소년 실업문제의 해소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정규직으로의 채용률 제고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99년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0년에는 3개월간 지급한 후 정규직 채용이 확정될 경우 다시 3개월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유인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턴지원비 지급기간 동안만 채용한 후 자의적인 해고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표 6의 인턴연수업체 현황에서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82.3%를 차지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도 17.7%를 차지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목적이 취업률 외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영세사업장 지원 등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3D 업종 중심으로 동 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자체 채용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의 지원은 중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턴제는 인턴기간 동안의 신분을 연수생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채용실태 및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대우, 자의적인 해고사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취업유망분야훈련 확대실시에 관한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유망분야훈련은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전문가 등 취업유망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 예산에 15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60%에 해당하는 90억원이 증액계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당초 예산 150억원은 청소년 미취업자 5,000명에 대하여 1인당 월 40만원씩의 훈련비와 월 10만원씩의 훈련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금번 추경예산 90억원은 추가로 3,000명을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동 사업 또한 전술한 정부지원 인턴제와 동일하게 전반적인 실업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취업유망종목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훈련과정보다는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전문가 등 첨단분야의 훈련을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인적자원의 개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효과성 및 적정성 문제입니다.

취업유망훈련 지원사업의 목적은 취업률의 제고라 하겠으며 사업량의 적정성도 취업률의 실적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 사업의 99년도 및 2000년 현재까지 취업률을 보면 다른 훈련과정과

비교하여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자료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취업률을 반영한 훈련기관 선정, 산업 수요에 부응한 훈련종목의 선정 등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며 또한 사회문제화되었던 훈련비 부당처리 등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훈련비 적정성 문제입니다.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동 사업의 훈련비는 월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훈련분야가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전문가 등 첨단분야임을 고려하더라도 민간창업훈련 월 21만원, 고용촉진훈련 월 16만원 등 여타 직업훈련의 지원비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직종별 실 훈련비를 고려하여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인 훈련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사이버 훈련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훈련체제 구축사업인 청소년 사이버훈련은 2000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318개 과정의 인터넷 가상능력개발훈련 및 원격화상훈련 운영비로 4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10개 과정 추가운영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훈련 서버구축비로 2억1,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확대는 실업률이 높은 청소년 실업자에 대하여 고용전망이 밝은 유망한 지식기반 직종 훈련 기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핵심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21세기 신지식산업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던 동 사업에 대하여 수강자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및 청소년 수혜자가 진입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확대가 필요한 재원은 자체예산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수혜자가 불특정하고 또한 훈련성과의 측정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향후 훈련프로그램을 자격검정 종목에 적극 반영하는 등 훈련성과가 산업사회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劉容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文洙 위원 발언해 주세요.

○金文洙委員 오늘 여러 가지로 금융노조 파업을 앞두고 있고 롯데호텔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유례없는 폭력적 진압과정으로 인해서 노동계가 몹시 소란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우려를, 노동부의 여러 가지 정책 또 노동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따 오후에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노동부로서는 특별히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노조의 당사자회의, 노·정간의 대화 이런 것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하고 노동부장관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노동부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98, 99년 두 해 동안 각 두 번 씩 했는데 사실 지난번 추경예산은 98, 99년 다 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주도하고 또 썼습니다. 그것은 실업대란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국민 모두 다 이해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6대 국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동안 사실 행정부에서 요청하면 예산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되레 비슷하게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도대체 예산심사기능을 제대로 하느냐는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16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이룩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사를 더 강화해라,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국회 자체의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이 보고서에서도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실업률이 청소년 부분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 청소년 실업 부분도 떨어졌다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수치로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추경을 요청하느냐 이것은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추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습적인 추경 요청 증후다 그렇게 우리 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옳지 않다 물론 그 중에 상당히 어려운 청소년 실업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배려가 예산에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채무가 얼마나 채무가 적어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직접채무만 작년 연말에 108조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여러 채무까지 합치면 400조가 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와 있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 돈을 우선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추경편성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고 또한 여야간에도 작년 하반기에 합의를 해서 재정건전화조기회복을위한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재정건전화조기회복을위한특별법이라는 것이 바로 추경이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陳稔 예산장관도 지난 5월에,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국가채무를 먼저 갚기 위해서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은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지난번 총선에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95%를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달라고 그러합니다. 2000년 본예산 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게 6월30일 현재 잔여분이 1조1,26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여분 예산을 써서 긴급한 부분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긴급성이 없는데 자꾸 한단 말이지요. 환경부는 요청 안 하지 않습니까? 노동부는 실업률이 더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 요청하고 노동부 자체에서 일은 안 하고, 화급한 노동현안에 대해서 장관님 뭐 합니까?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돈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의 항목별 집행내역서 있지요, 장관님 있지요? 월별 예산집행내역서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

○金文洙委員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善政 ……

○金文洙委員 월별로 예산 집행내역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당면한 노사현안에 왜 나서지 않습니까? 노동부 뭐하는 곳입니까? 노·사·정위원회가 하도록 두고 이렇게 한 적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예산집행내역서 먼저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심도있게 이 문제를 따지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 추경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노동부에서 당면한 금융노조 파업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아무 진전있게 하지 않고 노·사·정위원장이 겨우 나서가지고 대화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경찰청을 며칠 전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행자부장관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장관이 우리 노동부장관한테 행자부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거 정권에서도 없던 그런 복합적이고 인권유린적인 행위가 전현장에서 지금 번지고 있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오는데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하느냐 또 장관이 정치적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각 부처를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예산의 엄밀한 심사를 우리 당 전체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容泰**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가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한 시간 이상 지연 개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후 회의 시간을 능률적으로 쓰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委員長 劉容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오늘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 자체도 한 1시간 정도 지연이 되었고 또 오후 시간도 능률적으로 써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민련의 鄭宇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溪輪委員**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委員長 劉容泰** 예, 말씀하세요.

○ **申溪輪委員** 이게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체토론인 것이지요? 그 시간 제한을 15분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다음 안건으로 되어 있는 노동현안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15분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고 얼른 넘어가서 또 현안문제도 질의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 만약 15분 하게 되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 **委員長 劉容泰** 그래서 대체토론이 끝이 나면, 여러분들 질의가 끝이 나면 아침에 우리가 구성한 소위로 넘길 것이거든요. 소위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 본 회의에 이 안이 넘어올테니까 그때도 사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 **全在姬委員** 위원장님!

○ **委員長 劉容泰** 예.

○ **全在姬委員** 일단 정해진 대로 15분을 주고 각 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게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劉容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5시 반에는 일단 끝을 내도록 할테니까 15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조절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鄭宇澤委員** 鄭宇澤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 할 시간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그 사유가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부 것도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실업률 같은 것, 이게 98년도에 실업률이 15.9%였습니다. 또 99년도에 14.2%, 지금 통계주신 것을 보면 금년 5월에 9.3%, 전체 실업률 3.7%의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써 있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추경예산인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유가, 98년도, 99년도에도 벌써 매년 두 번씩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또 본예산을 성립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측가능성이 없었겠느냐? 만약 없었다면 이번에 몇 가지 편성된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노동부가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99년도 2차 추경 때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사업으로 2만명에 600억원이 되었는데 305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 99년도 지자체 동절기 실업대책사업으로 496억원이나 전용이 발생했어요. 저는 청소년 직업안정 예산 운용은 원칙없는 무모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이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업이 아닌 이미 예견된 예산으로 2000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시켰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청소년 실업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전에도 보면 청소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을 보면 96년에 6.7%, 그때 전체 실업률은 2%, 또 95년에 청소년 실업률이 7%인데 전체 실업률은 2%였습니다. 94년으로 가면 8.2%이고 전체 실업률은 2.4%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MF 이전의 청소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3.3배 내지 3.5배로 지금 여러분이 제시하는 2000년5월의 2.5배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차 추경 배경의 첫 번째 이유를 전체 실업률이 청소년 실업률의 2.5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잉여금으로 노동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 이 482억원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예산회계법 제47조2항1호에 의거해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미취업자가 인턴사원으로 산업체 현장훈련 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받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99년 정규직 채용률이 50.3%에서 2000년5월 말에는 84.9%로 채용률이 상승이 되어

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훈련 후에 얼마나 정규직으로 근무하는가 하는 이런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현재 안 나와 있지요? 예전에는 6개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이 인턴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시 3개월간 예산지원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예산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렇습니까?

○**노동부次官 金相男** 예.

○**鄭宇澤委員**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200억원 삭감한 이 항목을 추경에 오히려 흑까지 더 붙여서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것이 추경으로 예산편성 성립이 가능한 것이냐? 물론 소요가 더 많기 때문에 좀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일괄질의를 하고 이따가 답변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훈련기관 64개소, 직업훈련기관 77개소, 사설훈련학원 11개소에서 고학력 미취업자 3,000명에게 취업유망직종 훈련지원비로 월 40만원씩 총 7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따져 보니까 1인당 훈련비 40만원, 단가산출내역을 보면 월 근무 150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2,712원으로 산출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표를 보면 훈련생 평균 50명 이상일 경우 시간당 2,302원으로 2000년 본예산 포함 시 30억원 정도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 훈련비용단가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평균 50명 이상일 경우에 시간당 2,302원인데 이번에는 2,712원으로 계상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설훈련학원의 경우에 40만원 훈련비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20만원 정도의 훈련비를 받



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책정된 금액이 상당히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委員 청소년 고용안정지원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률은 90년대 중반 6%에서 99년7월에는 17.3%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99년12월에 15%의 실업률을 보인 후 2000년5월 현재 실업률은 10.4%, 전체실업률도 3.7%로 안정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청소년 실업대책의 명목으로 총 48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 전체예산의 2%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청소년 실업률이 최고 17.3%일 때 청소년 고용안정지원예산을 8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7%나 떨어졌는데도 예산을 60.3%나 증가해서 482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우리 국가 장래에 좋은 재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아까 모두질의에서 金文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채무 중 직접채무가 108조원에 달하고 간접채무가 약 400조원까지 다다랐는데 과연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께서 그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노동부가 1,078억원을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지금 278억원을 타당성문제로 삭감하고 800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업의 진행과정이 문제시되는 부분, 중도탈락이라든가 정규채용률의 저조 등 이러한 여러 사항들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상의 문제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고용안정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24세입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소년의 실업통계를 15세에서 29세까지 평균을 내서 9.3%라는 실업률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의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노동부가 이 통계를 몰라서, 청소년 실업률의 통계를 노동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것인지?

그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청소년의 개념조차도 확실히 다르고 24세 이상이 되면 9.3%의 비율에서 빠져야 하는데 그 비율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어개념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9.3%라는 비율은 29세까지 포함된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층의 실업원인은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력의 수급불균형, 학교와 직업간의 연계부족, 직업 안정망 미비, 파트타임 기회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직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훈련 및 학교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젊은 층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적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좌절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기업의 연계, 그리고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 482억원의 추경을 왜 편성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니 확실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浩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委員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청소년 실업문제는 단순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기둥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번 노동부 추경예산은 단순실업대책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소년대책과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업청소년들을 장기간 방치했을 시에 오는 국가·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배려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다변화된 경제 각 분야에 신속히 적응하고 고도화되는 첨단기술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은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부분에 많은 예산의 불가피한 증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복지부분의 예산배분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구조적인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10월이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장기실업자, 일용직 근로자, 여성장애인 등 실업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서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턴제 확대에 대한 것인데요, 정부지원인턴사업의 정규직 채용률이 2000년도에는 99년도 57.5%에 비해서 84.9%로 높아진 것은 경제상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업체들이 필요에 의해 인원을 뽑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인턴제의 지속적인 시행은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턴연수업체 현황을 보면 채용능력과 자금여력이 우수한 300인 이상 업체에 17.7%,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기업에도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채용능력과 자금여력이 큰 대기업에 인턴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제한하고 인력난과 자금난에 허덕이는, 실제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

기업 등에 우선 배정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앞으로 정부지원인턴사업의 개선 방향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3개월 연수 후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다시 또 3개월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 연수업체의 지속적인 채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6개월 동안 훈련비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 업주가 고용계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확인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책임행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행한 사업의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과 개선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들의 이직률이나 또는 이직동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정식적인 채용방식과 달리 정부지원인턴제를 통한 취업이 이직률이 아주 심하고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망분야 훈련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한 고학력자에게 다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전문가 또는 국제무역사 등 첨단분야 훈련의 국가예산을 들여서 재차 교육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훈련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유망분야는 대개 고급, 고난도의 기능과 기술을 원하는 업종이 대부분인데 20시간의 짧은 시간으로 전문성을 얼마나 체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중도탈락률이 99년도에는 평균 27.3%로 비교적 높고 취업률도 36.6% 정도로 아주 낮은 상황이고 2000년도 5월 말 현재 중도탈락률이 17%, 취업률이 42.9%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훈련기관문제인데 훈련기관은 한성직업전문학교 등 152개 기관이 있고 사설학원도 11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훈련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었거나 비리가 발견된 기관이 없었습니까? 훈련기관의 지도, 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집행된 예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훈련시킨 사람들은 국가의 인적재산입니다. 이들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全在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全在姬委員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줄어감과 동시에 고용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는데 대한 우려이고 또 시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공감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비정규직의 실태조사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장관께서 아직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4페이지 타부처의 청소년 실업대책예산이 1,63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부처 소관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 1,631억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1,63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타부처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금 482억원을 굳이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그 타당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99년도에 인턴제 사업예산에서 집행된 예산이 1,219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평균 청소년 실업률은 13.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당초 예산이 650억원, 이월예산이 305억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390억원으로 해서 총계가 1,445억원에 이릅니다. 그런 반면에 청소년의 실업률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5월 평균을 하더라도 11.5%인데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연평균은 엄청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히 5월 현재는 9.3%로 청소년 실업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산은 작년에 더 높을 때 집행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총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필연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것도 장관께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고용한 이후의 이직률 등은 李浩雄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고용 시에 정규직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서 3개월분을 추가로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계측된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3개월분 때문에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적성이나 그 회사의 인력수요로 봐서 그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3개월분은 계속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가 3개월분을 지급할 것이 얼마만큼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정 분석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직종 훈련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은 늘리면 늘릴수록 국부가 증진된다는 측면에서 훈련은 많이 시키는 것이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 장래를 봐서는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타훈련비에 비해서는 유망직종 훈련비가 대단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실제의 훈련비를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시 훈련기관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된 대로 40만원을 그냥 1인당 주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망직종 훈련을 시켰던 기관 중에서 훈련비를 부당처리해서 노동부에서 시정한 훈련기관은 몇 개 기관이며, 직종은 몇 개 직종이며, 그 인원은 몇 명에 해당되고,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韓明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韓明淑委員 저는 겹치는 부분도 많고 시간도

없고 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劉容泰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朴赫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朴赫圭委員 朴赫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실무를 맡으신 분께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朴赫圭委員 당초 예산은 800억인데 지금 추경 예산은 482억으로 60.3%가 증액됐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못 했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

○朴赫圭委員 잠깐만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만 열리면 증액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랬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연평균 실업율을 4.5%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률이 빨라지면서 실업자 수가 더 빨리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朴赫圭委員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울 것을 못 세워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朴赫圭委員 그러면 내년 2001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될까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

○朴赫圭委員 만약의 경우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거예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실업 대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라는 사실은 그간 작년까지만해도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에 실업대책이 급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들어 오면서 질적으로 좀더 특성별로 실업대책을 추진하자 해서 그중에서도 실업률이 높은 청소년 문제 이것을 줄여야 전체적으로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소년실업 대책에 관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朴赫圭委員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鄭宇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담당실장님한테 여쭙어 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다음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申溪輪委員 몇 가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담당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왜 편성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부분적인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긴박한 사정과 왜 정규예산 편성에서 빠졌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됨으로써 올바른 사업에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첫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중에 정부지원 인턴제 확대에 39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1차, 2차 인턴제 때의 경험과 이제 3차 인턴제 때의 경험이 전혀 다른 자료로 나와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응모가 적고 사업주도 외면하고 중도탈락률도 비교적 높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도 저조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2차 때는 말하자면 이것이 역전이 됐던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상황이 달라졌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적절히 설명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1차, 2차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3차 인턴제 모집 때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고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고용정책실장입니다.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인턴제를 시작할 때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가지고도 취직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고급인력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라도 뭔가 단기간이라도 고용을 시키자 해가지고 인턴제가 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차를 거쳐서 지금 3차에 들어 오면서는 우선 일 자리도 주변에 생기고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관행들이 형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그 전에는 그냥 연수형으로 했습니다마는 3차부터는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申溪輪委員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더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반론을 펴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아져서 가만 놔두어도 잘 채용하는데 뭐 하려 돈 들이며 채용하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해 볼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답변해 주세요.

우선 연수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지요?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정규 취업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지불해 주는 것으로 바꾸었지요?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이것이 취업률을 높인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수생이라는 신분에서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지요?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것은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申溪輪委員 산재라든가 기타 많은 면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런 것들이 좋아진 요인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모집하고 누가 사업장에 소개를 하고 누가 훈련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책임있는 당사자가 하느냐 아니면 책임없는 사람이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 부분은 처음에 대학에 맡겨주었습니다. 무언가 자기 졸업생들이니까 대학에서 제자들을 관리해 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 맡겨놓았다가 3차부터는 우리 노

동부가 나서서 스스로 개척을 해가지고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申溪輪委員 전에는 대학에서 맡았는데 3차부터는 노동부가 맡았다는 것은 노동부 지방관서가 직접 나서서 모집도 하고 소개도 한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사업장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3개월간 우리가 이런 보조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결과 이렇게 높아졌다 이런 얘기이지요?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 봅시다.

1차, 2차 때보다도 3차 때가 인원을 보니까 무려 5만6,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만6,000명이면 1차, 2차를 합한 숫자보다도 많은데 1차, 2차 때와는 달리 3차 인턴 5만6,000명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특징적인 것은 우선 1차, 2차 때는 대기업 위주로, 특히 대학이 많고 있기 때문에 30대 그룹에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주로 중소기업,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비율을 보면 전체 사용한 인력의 비율로 보아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申溪輪委員 제가 자료를 보면 3차 인턴의 특징은 1차, 2차와 달리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취업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려 63%가 여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학교 교육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안 되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78.6%가 지금 지방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사업장에 82.3%가 취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취업자 문제, 지방대학생 출신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에서는 노동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자꾸 설명의 핵심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맞습니다.

○**申溪輪委員**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 이외에 다른 긴급한 현안이나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사실 인턴제는 여러 가지로 일부에서는 비판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98년 또 99년 봄 이때는 대학의 교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격려 전화를 받았습시다. 그야말로 자기 제자들을 가르쳐서 졸업을 시켰는데 갈 데 올 데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여튼 일시적이거나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취업시켜 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운 것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격려 전화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申溪輪委員**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정리를 잘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여기 305억원이 이월된 것도 추경편성을 하는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월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 그랬는가 설명을 잘 해주세요. 또 지난번에 예산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다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업 유망분야 훈련에 관한 것인데 지금 全在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아주 긴급한 것이고 우리 노동의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261개 기관, 551개 직종, 2만8,827명이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152개 기관, 직종이 234개, 1만795명만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절이 훨씬 넘는 사람이 신청에서 탈락한 것이지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만약 그렇다면 1만795명만 뽑다 보니까 무려 약 1만4,000명이 탈락했는데 이 탈락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무슨 기준으로 나를 떨어뜨렸느냐 이런 항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노동부에 공식으로 민원성 항의를 한 것이 약 210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申溪輪委員** 그 다음에 그 외에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전부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申溪輪委員** 지방관서에서 심의를 했을테니까 중앙부서뿐만 아니라 지방관서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체로 어떻다고 봅니까? 많은 민원이 와 있다고 보여집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상당히 훈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더 해 주기를 바라는 면이 많습니다.

○**申溪輪委員** 노동부에서 이 민원이 몇 건이고 하는 총계를 잘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만 해도 이것과 관계해서 컴퓨터로 검색해 보니까 신문만 해도 대구매일신문 4월20일자, 그 다음에 KBS 9시뉴스 5월9일자, 광주 MBC 5월29일자가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다니 이게 웬일이냐” 이런 투로 보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나머지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믿을테니까 그런 노력을 좀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알겠습니다.

○**申溪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委員** 대부분의 쟁점이 다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감사합니다.

다음 朴仁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朴仁相委員** 원칙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98년도의 추경편성은 이해를 하고, 99년도

추경편성도 이해를 하고 2000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가로 자꾸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추경의 요인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 게 옳겠습니다. 마는 예산편성 관행상 당초에 많은 충분한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되는 관례가 오래 전부터 생겨온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朴仁相委員**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례대로 내려왔다 하는 이 마인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1년의 사업계획은 한번 세웠으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의례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적당한 것은 넘겨놓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여기에 취업유망분야 훈련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98년8월 국무회의에서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거든요.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미취업자의 취업촉진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성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률을 쳐다보면 99년 22.3%, 2000년5월 말 현재 48.7%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의 효율성 측면,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이것이 아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朴仁相委員** 상당히 많지요? 그렇다면 굳이 이 분야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 분야를 통합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각 훈련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해서 다른 종류의 훈련과 함께 하는 훈련기관도 있고 특정분야의 훈련만 시키는 훈련기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훈련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부처이기주의가 성행하는 바람에 자기부처의 예산을 계속 옹호하다 보면 타 부처와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예산은 부처별로 나누어 놓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면 노동부산하에 훈련기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유망직종분야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훈련기관을 통합운용을 하면 도리어 더 효율성을 가져올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통합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검토해볼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이예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그렇게 부처별로 나누어서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한 부처로 옮겨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것은 다소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우선은 1단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계작업을 하고 차츰 서로 특화해 가지고 부처별로 나누어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년 사이버훈련 강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이 3만명으로 확정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朴仁相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2만5,000명을 추가를 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소요예산이 2억1,800만원인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드느냐 하면 교육용 콘텐츠 개발하고 서버구축비지요, 맞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2000년5월 말 현재 1만885명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금년도 계획 3만명 중에서 지금 1만885명만 훈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금년도 5월까지 1만1,000명 정도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처음 계획에 비하면 거의 2만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가로 2만5,000명을 여기에 하는데 어찌보면 공간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접속연결을 시켜서 확

대해서 아마 이것을 연결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복안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확대하는 연결부분도 지금 1만명을 했다고 그러면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연결분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 1,8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시설용량을 넓혔을 때 과연 2만5,000명하고 나머지 2만명을 그러면 4만 5,000명을 6개월 동안에 소화해 낼 수 있느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담당국장이……

○**朴仁相委員** 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능력개발심의관 宋智泰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이버 훈련은 일반 재직자 훈련에 국한되어서 상당히 용량이 제한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님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1억1,800만원으로 서버용량을 늘리면 민간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한테까지 다 시혜를 줄 수 있고 이 기술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력공단에서 자격검정시험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훈련이 실시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버용량 1억1,800만원하고 콘텐츠 개발비만 지원된다면 목표달성은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朴仁相委員**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계획대로 한다면 도와드려야지요.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것을 이렇게 용량을 확대시켜 가지고 해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벅차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예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의논해 가지고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文洙 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文洙委員**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인턴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실제 순 추가고용 효과가 얼마나, 인턴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순수하게 추가고용된 효과가 얼마인지 장관님 따져 보셨습니까?

인턴제를 지금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는데 실

제로 예산을 얼마 쓰니까 얼마 순 고용이 되더라 그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

○**金文洙委員** 기왕에 취업한 사람한테 자꾸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1만 4,000명을 추가로 더 하겠다 하는 경우에……

○**金文洙委員** 1만4,000명이 아니라도 지금 수혜인원이 4만2,0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5만6,600명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순간에 인턴자이고 다음에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능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순수 추가고용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분석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 가지고 5만6,000명이 취업되면 그 자체로서는 일단 5만6,000명의 취업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한 사람도 취업이 안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비교는, 아직도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고실업 상태에서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일시적 임시방편 처방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들의 고용 자체를 상시적으로 높여주는 순수 추가고용 효과가 있느냐 그 분석이 있어야지요? 그것 없이 돈을 막 쓰면…… 이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인턴으로 인해서 특별히 순수 추가고용 효과가 많지 않다하더라도 너무 고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사회적으로 불안이 팽배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바람을 빼주는 효과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뭐냐 이겁니다. 노동부에서 돈을 더 쓰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인턴으로 들어와서 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지방대학 출신,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이 체도를 통해서 취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좋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성 또는 지방대학 출신들이 인턴으로 단기간 왔다가 끝나고는 채용이 됩니까? 그 채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앞으로 3개월 인턴으로 하고 다음에 3개월 취업을 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또 3개월 지원하고 그 이후에 계속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안정적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제 말씀은 뭐냐 국회에서도 인턴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지만 인턴을 고용함으로써 고실업 상태를 조금이라도 낮추어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장관님이 답변하시면 이것은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실업 상태가 지금 많이 하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지요? 그 점은 같은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위기상황, 실업의 대란 상태는 적어도 경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는 선진국도 다 있던 말입니다. 그렇다고 선진국들도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인턴제를 계속 쓰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마는 제2차 인턴제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 중 2,999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4일까지 조사해 본 결과 77.6%인 2,328명이 아직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계속 근무는 인턴으로 근무합니까, 정규직으로 근무합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인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金文洙委員** 인턴 전체 중에서 77.6%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계속 근무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勞動部長官 崔善政**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작년까지는 50%대에 머물렀습니다마는 금년 들어 와서는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정규직화된 것이?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현재의 인턴에 대한 추가고용효과, 정규직화 되는 것이 얼마나 하는 것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훈련으로 인해서, 직업훈련으로 인해서 여기 여러 가지 유망분야 훈련비용을 확대하는데 훈련으로 인해서 실제로 추가고용 효과가 얼마나 이것도 통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 노동부 자체에서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직업훈련으로 인해서 추가고용되는 실제 효과가 얼마라고 보느냐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정리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예산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가부채가 워낙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때 정말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장관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 과거와 다르게 과거의 관행이 상임위에서는 적당하게 봐줘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히 따지기로 결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전부 점검을 할테니까 충분한 자료 뒷받침을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金樂冀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엄밀한 심사를 할테니까 그렇게 충분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洙委員**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예, 말씀하시지요.

○**李相洙委員**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추경예산 항목 중에서 2000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삭감된 부분이 각 항목별로 얼마쯤

됩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인턴 예산에서 2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또 취업유망 분야 훈련실시 부분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없어요? 청소년 사이버 훈련강화도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원래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인턴부문만 200억 정도 삭감된 바 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李相洙委員** 알겠습니다.

○**鄭宇澤委員** 사이버쪽에서 2000년도 예산에는 고용보험기금에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일반회계에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번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5인 미만……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鄭宇澤委員** 사이버 이쪽은 민간에 위탁하면 안 됩니까, 정부가 꼭 해야 됩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비용측면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것이……

○**鄭宇澤委員** 5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 된 게 언제지요? 그것은 작년에 이미 됐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鄭宇澤委員**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 편성할 때 이미 이것에 대한…… 갑자기 이것이 대두되어서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되는 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가능 했던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鄭宇澤委員**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왜 넣어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능력개발심의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로 포함시킨 것은 여태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해 온 것은 재직자, 기업주가 근로자 임금의 0.1%에서 0.7%까지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조업 중심으로 사이버 훈련을 지금 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사이버 쪽으로 옮겨가지고 실시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위원님께 2억1,800만원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

지 또는 대학교를 졸업했으면서 자격증은 따고 있는데 자격증과 관련된 것을 집에서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회계로 보완해 주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鄭宇澤委員** 그것을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경심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도저히 예측불가능했던 것이 갑자기 무슨 일이 대두되었다고 했을 때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제가 이번에 정말 점잖게 질의해서 그렇지 이번에 노동부에서 낸 것을 보면…… 청소년실업률도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실업률이 지금 갑자기 높아져서 이렇게 대두된 것입니까?

이것 오래된 얘기입니다. 청소년 실업률이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현상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청소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낮았습니까? 높았다고요. 98년12월에도 전체 실업률은 7.9%였는데 청소년 실업률이 그 당시에 19.7%였어요. 또 금년에 들어와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청소년 인력개발 및 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하고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를 갑자기 추경안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경 편성에 올라 왔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각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것을 부인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宇澤委員**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당위성이라든지 긴급성 이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申溪輪委員** 아까 李相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 국회심의 때 깎인 것이 얼마나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인턴제 사업 200억 깎였다고 답변했고 그 다음에 뭐지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취업유망분야훈련입니다.

○**申溪輪委員** 그것도 좀 깎였지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깎인 것 없습니다

다.

○申溪輪委員  까인 것 전혀 없어요?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예, 국회심의에서 까인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李相洙委員  국회심의에서는 까인 것이 없는데 처음 정부에서 예산안 만들 때에 까인 것은 있습니까? 노동부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예산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까인 부분은 있습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宋智泰  그 부분은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때 실업률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유망분야훈련뿐만 아니라 99년도에 5,333억원의 실업대책훈련비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3,406억원이 배정되었으니까 엄청나게 까인 것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은 있었습니다.

○申溪輪委員  지금 내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항목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 문제, 이렇게 해서 동 사업 또한 전술한 정부지원 인턴제와 마찬가지로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은 9,200명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22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78억원이 감액되고 인원도 5,000명으로 축소된 바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미스프린트라고 그러합니다. 프린트를 잘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委員長 劉容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통해서 본 위원장의 느낌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경을 내는 입장에서 충분하고도 필요한 자료,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타당한 이유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석에서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면서도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정부의 업무집행자세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세입니다.

위원장이 여기서 일일이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특히 노동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 항목 중에서 타 부처에서도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을 내놓기도 하고 또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기금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부처간에 상호 협조나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점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600억의 예산을 지출해서 각 대학을 통해서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이나 정보화교육으로 고급화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통부가 판단할 때 노동부가 지금 여기서 유망직종으로 판단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예산을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예산이 아닌 정보화추진기금을 통해서 이와같은 훈련을 할 수 없겠느냐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다더라면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예산 아닌 기금에서 정통부가 대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런 정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나 조율이 없이 각 부처 나름대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내놓는 이런 것을 국가가 예산심의할 때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적은 액수지만 일반회계 아닌 그런 촉진기금이나 또 다른 여타 기금에서 또 노동부가 아닌 다른 부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부처간의 협조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35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합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樂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 위원님께서 청소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200억원을 삭감했는데 또 추경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劉容泰 위원장, 申溪輪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원이 삭감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예산의 필요성이 없다가보다는 실업대책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3차 인턴제는 지난해에 하던 방식을 많이 개선해서 지방노동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또 지방노동관서별로 채용목표인원을 할당하고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인턴채용 박람회도 개최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활성화가 되었고 그것이 또 예상보다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2차의 경우에는 57.5%에 불과했는데 3차의 경우에는 84.9%이고 또 중도탈락률이 2차까지는 30%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11%에 불과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게 되었고 기업과 인턴희망자로부터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대학과 여성들로부터 이와같은 인턴에 대한 수요가 현재도 있고 졸업 채용시즌 종료 후에 취업탈락자 등의 흡수를 위해서 적기대응이 필요해서 당초 4만2,00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만6,600명으로 1만4,600명을 추가해서 시행함으로써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지금 당초에 4만2,000명을 계획해서 예산이 이월예산 305억원 해서 650억원에서 955억원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樂冀委員** 그런데 상반기 집행된 것이 595억원이고 지금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이것은……

○**金樂冀委員** 600억원 가량을 집행하고 지금 300억원이 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것은 계속 매월 지출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金樂冀委員** 300억이 남았는데 당초에 기본으로 세웠던, 상반기에 2만명 했으니까 2만2,000명이 하반기 실시계획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연간 해서 전부 4만2,000명입니다.

○**金樂冀委員** 원래 계획상 지금 2만명 실시했으니까 2만2,000명 남지 않았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고……

○**金樂冀委員** 그러니까 어떻든 6개월 간에 2만명을 실시했으면 원래 목표대로 2만2,000명은 지금 실시 못 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게 상·하반기……

○**金樂冀委員** 남았다기 보다는 2만2,000명을 더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4만2,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4만2,000명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반기에 나누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졸업생들이 1월, 2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업 직전, 직후에 한꺼번에 이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예산 보다도 전체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턴 사원 그 사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이렇게 6개월간 나가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어떻든 지금 2만명을 실시했다고 했으니까 2만명 실시하면 약 600억이 되지요? 원 계획으로 보면 2만2,000명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본적인 본 뜻을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가 빚이 많이 졌는데 이것을 굳이 1만4,600명을 확대해 가지고 389억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사업만 집행을 해도 될 일을 왜 추경에 389억원을 또 올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 뜻은 여기에서 굳이 시간 없는데 자꾸 설명할 필요없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구사업입니까, 한시적 사업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실업이 굉장히 숫자가 많을 때에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 사업이지요. 한시적 사업인데 전체실업률 3.7%면 그다지 실업률이 높은 것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나라든 3.7% 실업률이 안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 실업률은 다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 장래를 보아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한테, 기업들한테 시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기업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것이지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것이 청소년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기업주들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사업주한테 시혜를

준다가 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지방대학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어떻게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강세인데 그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마는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의 실업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장관! 그러면……

○**李相洙委員** 가만히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서 8쪽에 보니까 참여인원이 5만6,5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집계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직후에 신청한 사람들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대부분이 1월, 2월의 대학 새로 졸업하는 사람들은 졸업하는 시기 전후에 주로 채용되었고 29세에 가까운 25세 넘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4월, 5월에 채용되었습니다.

○**李相洙委員**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참여인원을 인턴사원으로 교육시키는데 추가 경비가 필요해서 추경 편성했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5만6,593명을 전부 다 인턴 교육시키는 데에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인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처음에는 참여 인원을 몇 명 잡고 신청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작년도 이월된 것하고 금년도 예상하고 해서 4만2,000명입니다. 그런데 중도탈락하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율을 작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감안해서 한 5만6,0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중도탈

락률도 떨어졌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율도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돈이 사실상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처음에는 4만2,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후에 1만4,000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해온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만2,000명 분의 예산을 가지고 한 5만6,000명 정도의 인턴사업을 하면, 과거의 통계상 중도탈락율하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분이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5만6,000명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과는 달리 정규직으로의 채용률이 높아졌고 탈락률도 줄어 들었고 그래서 이 돈이 모자라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金樂冀委員**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고용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동기 보다 현재 1년간 7% 정도 청소년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언제까지, 몇 %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확대실시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냐 하는 말씀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앞으로 이 사업은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실업대책의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金樂冀委員** 제 얘기는 실업률도 떨어졌고 정규직 채용율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동시장이 그만큼 안정되어 가고 경기가 회복되어 가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업을 더 확대실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축소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 별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정규직으로 채용율이 높아진 것은, 물론 시장 자체에서 고용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6개월간 인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은 3개월간 인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정규직의 3개월간 임금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유인요소가 되어서 정규

직 채용율을 그만큼 올리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장관님! 속도를 내서 요약적으로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다음 金樂冀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에 있어서 중도탈락이 높은 사유와 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중도탈락이 높은 이유는 경기회복에 따라서 훈련 중에 취업을 해가는율이 28.4%가 있고 또 처음부터 적성과 수준에 맞지 않는 훈련과정을 선택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리 상담을 통해서 그 훈련의 동기와 목적이 명확한 훈련생을 선발해서 중도탈락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樂冀 위원님께서 고용통계 작성시 청소년연령 기준을 통계상으로는 15세에서 24세로 해야 되는데 29세까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국에서 모두 15세에서 24세로 통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15세에서 24세까지로 해서 통계는 잡고 있는데 이 실업대책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로 대학졸업 후 군대에 가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와서 취업을 하는 연령까지를 계산해서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대상으로서의 29세까지이지 청소년실업 통계상의 연령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노동부가 활용하고 있는 통계는 통계청 통계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실업률 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29세까지 군대에 가서 근무한 기간을 5년이라고 잡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통계청의 협조하에 저희가 이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金樂冀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계, 또 직업훈련의 강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계방안은 현재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계방안을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직업훈련참여율이 현재 17%인데 40%까지 확대하고 전략직종을 선정해서 집중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청소년에 적합한 사이버훈련을 강화하고 취업유망분야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浩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위원님께서서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어 정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金樂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해서 주로 이 인턴이 지원되도록 하고 대기업 쪽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기업 쪽을 좀더 제한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이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을 때 299명까지의 통계입니까? 그러니까 300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업종마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계를 낸 것은 299명 이하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李浩雄委員 5인 이하라든지 하는 아주 소기업 쪽의 통계를 따로 낸 것은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5인 미만이 20.4%, 5인에서 9인이 12.5%, 이렇게 단계별로 통계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李浩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큰 사업장, 통계의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다르겠습니다만 큰 사업장같은 것은 차제에 줄이거나 없앨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침은 있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대기업 쪽은 제한하고 아주 소기업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浩雄 위원님께서는 인턴기간 종료 후의 이직률과 이직동기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6개월 종료 후 고용계속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조사 등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제2차 인턴제 수료자 중에서 정규직 채용자 2,999명에 대한 조사결과 77.6%인 2,328명이 계속 근무 중에 있고 금년도 제3차 인턴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浩雄 위원님께서 취업률 제고와 중도탈락 방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훈련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상담을 강화하고 훈련동기가 명확한 훈련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또 맞춤형훈련 등을 통해서 취업과 바로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고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부실훈련기관은 훈련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차등적으로 운영해 나가므로써 훈련효과를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李浩雄 위원님께서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예산, 감사 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실업자 훈련기관 1,6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18.3%인 298개소에 대해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고 그 중에 위탁배제는 59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기관에 대해서 청, 록, 적색 등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또 훈련기관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기관과 우수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허위출석을 한 경우에는 가담훈련생뿐만 아니라 출석관리소홀 훈련교사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대부분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개입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委員長代理 申溪輪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신문에 많이 났고 훈련비만 받아먹고 실제로는 안 하는 곳은 아닌가 하는 것이 걱정이예요. 그런 걱정을 우리 노동부 공무원도 알고 계실텐데 제가 보면

대부분 비영리법인인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몇 %가 비영리법인이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심이 가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다음으로 全在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의 비정규직 관련예산은 없는데 본예산에 충분해서나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서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비정규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위해서 이미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노동경제학회에다가 연구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근로자의 보호와 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추경에는 비정규근로자와 관련된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이 앞으로 제도 개선할 의지는 강하신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다음으로 全在姬 위원님께서 타부처 소관 청소년 실업대책 추경예산 1,631억원의 내용을 밝히고 노동부가 그렇다면 왜 추경을 따로 요구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타부처 소관 추경예산은 교육부의 전문대 산업체 요청과목 설치에 50억,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에 29억원 또 정보통신부의 교육훈련 40억원 기타 문화관광부 소관 정보화, 국방부의 추가 징집 등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등은 저희 노동부의 사업과 성격이 조금 다르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런데 지금 장관님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예컨대 정보통신부의 교육훈련 예산하고 여기 유망직종 훈련하고는 중복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단위 부처로 보면 중복이 아니지만 전체 정부로 보면 중복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절반 정도는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드러나고 또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 번 예산편성 시에는 부처간에 사전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노동부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챙겨서 노동부가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부분에 있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히 노동부가 자청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崔善政** 가급적이면 부처간에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IT분야 인력은 21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등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각 부처간에 조금씩 비슷한 훈련입니다마는 조금 특성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최대한 안 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하여튼 예결위원회에서도 아마 다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다시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崔善政** 알겠습니다.

다음 全在姬 위원님께서 취업유망 훈련 시 지급되는 훈련비용은 예산에 편성된 대로 월 40만원씩 일괄 지급하느냐 아니면 소요훈련비를 계산해서 지급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훈련비 지급은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기관에 일률적으로 월 40만원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全在姬委員**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요.

유망직종하고 관련해서 훈련비 부당처리한 훈련기관의 실태와 조사 조치내역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고용 시에 3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인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실증적 효과를 설명해 달라는데 그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것은 99년도에는 청소년 실업률이 더 높았는데 집행은 1,219억 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청소년 실업률이 5월 현재 9.3%이고 5월 전체 평균은 11.5%인데 왜 예산이 당초 2월과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1,445억원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시면 다른 위원님 답변하고 추가로 해주시고 아니면 정 준비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崔善政**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全在姬 위원님께서 물으신 노동부의 직업훈련

실시와 관련된 훈련비를 부당청구한 훈련기관, 훈련비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全在姬 위원님께서 유망직종분야 훈련기관에 관해서 별도로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훈련분야, 훈련기관만을 따로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앞으로 그것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樂翼委員** 장관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全在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수요공급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들이 수요공급 원칙에서 다 이루어지겠지만 이 인턴제 문제는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학교를 졸업하는데 그것은 배출되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나 이것입니다. 그것이 실업자나 실업자가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나 이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을 꼭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100명을 채용하던 50명을 채용하던 그런 계획이 있을 적에 채용시험봐서 정상적으로 들어 가는데, 그냥 무던히 앉아서 그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 50명에 대한 것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 수요공급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실업률이 아무리 낮아도 2%, 3%가 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부장관 崔善政** 그 수요공급의 기준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실업률이 높고 특히 청소년 실업률은 더 높고 해서 일자리가……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樂翼委員** 제가 큰 틀은 이해를 하는데요, 남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실업률이 작년 동기보다 7%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자꾸 확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지원자가 있으니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배출되는데, 그렇다면 매년 정부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냥 지원하는 것이냐, 내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좀 부족해서 추경을 올렸습시다라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줄어 들었습니다.

○**金樂冀委員** 아니,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작년도보다는 당연히 줄어야지요. 7%나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줄어야지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4만2,000명을 편성했다가 다시 또 1만4,600명을 더 늘리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으니까 는다고 그러면 수요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 부분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시다라는 중도탈락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 이것을 감안해서 5만6,000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4만2,000명 분으로 책정된 이 예산가지고도 그것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탈락률이 줄어들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또 높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 소요가 추가로 생기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金樂冀委員** 제가 바로 그 부분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니까 고용이 안정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자꾸 예산을 증액하니까 저는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용이 안정돼 가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신규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그것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돈을 대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요.

○**李相洙委員** 장관님, 본위원이 이해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2000년3월 말까지 인턴 신청자들이 7만7,000여명이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李相洙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가능하면 많이 신청받아 가지고 인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한 5만명 정도를 예산편성해 가지고 올렸는데 정부 예산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안 돼서

4만2,000명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李相洙委員**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처음 계획대로 7만7,000여명이 신청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추경편성한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2000년3월부터 이미 있었다 하는 얘기 아닌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수요는 항상 현재 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장관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인턴제도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고 많은 신청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다른 부처들의 어떤 이해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이라도 다시금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추경편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

○**李相洙委員**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노동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처음 의도대로 해 보고 싶다는 취지 아닌가요? 물론 이것이 추경 형식을 통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처음에 7만7,000여명이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 신청할 때 한 5만명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이라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

○**委員長代理 申溪輪** 장관님, 이 문제는 약간 배경이 다른 이의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이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까닭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金樂冀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樂冀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그러면 장관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委員長代理 申溪輪** 全在姬 위원님 충분히 됐습니까? 자료제출로 해도 되겠습니까?

○**全在姬委員**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고 이것이 또 소위에서 심의가 되니까 소위에서 심의될 때 타당성이 있다면 노동부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지 않으신 부분은 소상하게 서면답변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첫 번째 질의와 정부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다만 좀더 깊이 있는 추경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전에 구성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최근노동현안

(16시18분)

○**委員長代理 申溪輪**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최근노동현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임단협 과정에서 노정된 노사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노사간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일련의 사태를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최근노동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위원장님, 원래 이 현안을 보고할 때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롯데호텔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방청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위원장으로서 방청을 허가합니다.

들어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들어 고용 노사관계에 있어 비교적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말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으로 노사관계에 다소의 불안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표명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

계의 파업 움직임과 일부 분규 사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으로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해지고 또 국민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부는 당면 현안들을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동계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기관장회의를 소집해서 전국적으로 분규현장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당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기획관리실장 文亨男입니다.

최근 노동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롯데호텔 노사분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분규에 이어서 7월11일로 선언된 금융노조의 파업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롯데호텔 노사분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사분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0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상급단체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주억 노조위원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2일 노사간의 상견례 후에 5월25일 1차 단체교섭이 있었으나 진전이 없자 5월29일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6월3일에서 5일에 걸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88%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8일 서울지노위는 당사자간의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로 조정신청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6월8일 사용자측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일방당사자 중재신청 조항을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6월9일날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고 호텔 현관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계속한 바 있고, 6월9일부터 노사는 단체교섭을 계속했으나 6월13일 상호

최종안을 제시한 후에 교섭을 중단하고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노조는 6월9일 파업 이후 6월13일부터 6월15일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프레스센터와 정부종합상황실이 롯데호텔에 설치 운영되자 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간에는 600명이 호텔 앞 중앙주차장에서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야간에는 200명이 호텔 지하 1·2층 및 중앙주차장에서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19일부터 파업이 장기화되고 노사간 문제의 타결이 지연되자 노조원 200여명이 호텔에 진입해서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비노조원을 상대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월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월13일부터 4차에 걸친 중재회의 결과 중재재정을 했습니다.

중재재정 주요내용은 임금 8% 인상, 정년 65세 그리고 1년은 촉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6월22일부터 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 진입해서 호텔을 점거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6월22일부터 교섭이 재개되어 2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라는 상호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결렬된 바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유인물에는 정년이 56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죄송합니다. 56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6월29일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측은 7월10일까지 조합원에게 조업복귀를 공고하고 미복귀시 면직처리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7월4일 현재 조합원 중에서 363명이 복귀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이 복귀를 희망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조사를 한 것이지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사용자측에다가 복귀희망을 연락해 온 숫자입니다.

○金文洙委員 사용자측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개인적으로 회사에다가 조업복귀를 희망한다고 연락이 온 숫자입니다.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공고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복귀하겠다고……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조사한 바가 그렇다 이것이지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알겠습니다.

(申溪輪 간사, 劉容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참고로 노사간의 주요 쟁점을 보고드리면 쟁점에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 노측에서는 2년차 대상을 내년부터 정규직화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라는 사측은 5년차 대상부터 내년부터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이견이 있었고, 단협상 일방중재조항에 대해서는 노측은 단협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라는 사측은 현재 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년 문제는 57세로 2년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56세로 1년 연장을 주장한 바 있고, 봉사로 잉여금 이것도 월 20만원 이상 지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라는 사측은 구체적인 사항은 봉사로 분배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고 하기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하 주장 내용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부가 그동안 지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6월9일 저희 본부 노사조정담당관과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민주노총쟁의국장과 민주관광연맹위원장을 면담하고 파업중단을 설득하고 사장과 총무이사를 면담해서 성실하게 교섭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10일 노사조정담당관은 총무이사를 면담하고 주요 쟁점사항 중심으로 조율토록 단체교섭을 지도하고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면담해서 프레스센터 설치기간 중에는 파업을 중단토록 설득한 바 있습니다.

6월11일 노사조정담당관이 노동조합측에다가 사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사간 재협의를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관광연맹위원장을 면담해서 프레스센터 로비점거 등의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6월12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노사간의 본 교섭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상급단체인 민주관광연맹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에 도달토록 상급단체의 지도를 요청하고 사측 대표이사를 면담해서 노사 모두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을 해서 타결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노위가 중재재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재정안 내용을 6월19일 서울지노위

가 중재재정을 했기 때문에 중재재정서를 노사 양측에 직접 송달한 바 있고, 그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민주관광연맹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을 면담하고 중재재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따르고 농성을 풀도록 설득하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토록 하고 사측과 노사간에 협의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찰력 투입경위를 파악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6일 노조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6월26일 노동조합원 150여명은 복지관을 향의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폭행 및 화분 등 기물 파손행위가 있었습니다.

○**金文洙委員** 6월16일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출두요청서를 발부한 일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남대문경찰서에서 출두요청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출두요청서를 발부한 것이 6월14일이지요?

○**委員長 劉容泰**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파악을 해 보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제가 보고드리는 도중에 파악된 것은 보태서……

○**申溪輪委員** 지금 보니까 날짜가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6월16일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는데 업무방해 내용이 무엇인지 아울러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할 수 있으면 업무방해 내용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19일 자로 중재조정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방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28일 노동조합원 50여명은 19층 사무실에서 인사과장, 총무팀장, 시설이사를 1층 로비로 데려가면서 얼굴을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바 있고 1층 로비에 모여있는 조합원 500여명 앞에서 총무이사와 19층에서 데려온 직원 3명 등 4명을 세워놓고 총무팀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전체가, 6월26일 직원폭행

및 화분 등 기물파손 그 윗 부분하고 그 밑에 발로 차고 폭행을 했다는 것이라든지 총무팀장 뺨을 때리고 바닥에 무릎꿇고 이것이 전부 다 노조측 주장하고 다르거든요. 노동부에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새로 조사하세요. 이것이 지금 노조측의 주장하고 노동부 주장하고 전혀 다르고 노동부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보고서를 썼는지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새로 이야기해 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지금 참고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6월26일, 28일 이 행위는 경찰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상황입니다.

○**金文洙委員** 경찰의 조사와 발표를 노동부가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지요? 노동부 자체에서 이것을 목격하거나 조사한 것은 아니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노동부의 감독관이나 현장에 지도관리 누가 나가있는 적은 없고 경찰 보고를 그대로 노동부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폭행사건하고 이것은 경찰에서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노동부는 이 당시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중요한 노사현장에 노동부 담당자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찰 보고를 인용하게만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런데 위원님, 저희 담당 감독관이 인원이 층층이 많은데 감독관이 하나 하나 사건을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金文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감독관이 나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현장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감독관의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하실 수 있지요? 감독관의 보고를 장관이나 실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보고를 그대로 여기서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나, 경찰의 주장과 노조의 주장 또 경찰의 주장하고 우리 당의 주장하고도 전혀 달라요. 그런데 경찰의 무력진압,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진압을 했던 경찰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노동부가 받아가지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자체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경찰의 보고서를 요약해서 그대로 글로서 하면 상당히 이것이

노조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李相洙委員 이렇게 하십시오.

보고를 하는 중이니까 경찰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보고를 했는지 경찰에 물어봐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우선 보고부터 들읍시다.

○金文洙委員 그 부분을요……

○委員長 劉容泰 金 위원님, 자꾸 이러면 이 후에도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4시반인데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질의사항을 하도록 그래야 회의가 순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알겠습니다.

경찰의 투입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월29일 새벽 노조원 1,000여명이 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점거농성 중에 4시05분 경찰이 노조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코자 병력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32층 이상으로 피신하여 집기류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항한 바 있고 7시에 노조원들은 36층 대연회장으로 피신하면서 36에서 37층 유리창을 깨고 집기류 등을 밖으로 투척하면서 경찰과 대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 병력은 36층과 37층에 전원 투입되어서 저항하던 노조원 1,122명을 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에 체포영장 발부자 8명 중 7명이 검거되어서 이중 3명이 구속된 바 있고 나머지는 훈방조치된 바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가만히 계세요.

경찰투입병력을 쏜놓았는데 여경 150명 포함이라고 했는데 경찰투입 병력 중에 대테러임무를 주로 하는 슬개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

○金文洙委員 그 투입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죄송합니다.

경찰력 투입 경위는 저희가 경찰력의 투입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노동부가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노동부가 그 현장에서 상당한 폭행이 있어서 계속 민주노총에서 항의집회하는 것 아시지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노동부가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왜 이런 폭력이 있었느냐, 어떤 테러진압부대가 9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행사부장관하고 경찰청장한테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진압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과잉진압이 있어 가지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노동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나는 모르겠다, 경찰에서 준 자료만 보고하면 이 보고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 하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申溪輪委員 金文洙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보고대로 하더라도 노동부는 일정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하셨다면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앞페이지에 전임노조장이 김병득 이래서 한국노총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병득 전임노조장이 재임한 기간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재임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 자료는 파악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분규입니다.

노사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체는 대표자가 박태영씨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1만2,023명입니다. 노동조합은 전국의보노조 그리고 의보공단노조 그리고 직장의보노조 등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사분규 경위를 보고드리면 98년10월1일 전국지역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7월1일 국민의보공단과 139개 전국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공단에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3개의 노조가 병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직장 의보는 의보조직 및 재정통합, 시행유보 등을 주장하며 4월6일부터 20일까지 부분 및 전면파업을 단행한 바 있고 4월20일 통합공단 조직구성안 발표 이후 파업을 철회하고 통합작업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의보공단 노조는 6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파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통합작업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국의보노조는 99년11월20일부터 2000년2월11일까지 10차례 교섭을 갖고 단체교섭결렬을 선언한 후에 2000년2월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월2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락이 거부됨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의 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2월25일 노동조합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83.4%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전국의보노조는 3월20일 의보개정 국고보조금 50% 법제화, 조직 완전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18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사 직제조정안 발표에 앞서 직장의보 인원을 전 지사에 분산배치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역별로 순환파업에 돌입했습니다.

7월1일 공단 출범을 앞두고 고용보장과 공단의 적정인력 확충·유지 등을 요구하며 6월20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개시하고 2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6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노사간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무분규선언, 노사평화선언 수용을 전제로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라마는 노조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7월1일 2시45분경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7월6일 현재 노조원들은 공단 앞에서 현재 집회와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주요쟁점을 보고드리면 노조측은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피보험자 자격관리통합, 11월 이후 전 지사에 직장의보직원을 분산배치할 것, 인사 전보 시에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 다음에 현재 인원을 정원으로 인정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것, 기능직·전산직의 일반직 전환, 징계기록말소,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 총액임금 대비 15.5% 인상할 것, 노조전임자 축소는 43명에서 38명으로 한다, 노무근무 직원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2001년12월 의보완전 통합 시까지 집단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노사평화선언문 수용을 대전제로 주요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

용한다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노동부 지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통합과 관련해서 서울서부노동사무소가 수차 파업자제를 지도했고 경찰력 투입 전날 밤인 6월30일 서울서부소장이 공단 6층 회의실 및 이사장실을 방문해서 불법행위 자제와 적극 교섭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이 요구한 노사평화선언 및 조합원 자격제한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청취한 후 노측에 대해서는 노사평화선언을 수용토록 하고 사측에 대해서는 노조원 자격 관련해서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노측의 수정 제시안을 수용토록 했으나 양측이 당초 입장만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양측이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서 노사 양측에 7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에 맞추어 노사 대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교섭을 타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찰력 투입 경위입니다.

○**金文洙委員** 잠깐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전부 다 보고한 것을 취합한 것입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노동부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네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의료보험공단 현장에는 노동부에서 감독관 외에는 간 사람이 없습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전담 감독관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노동부 중앙에서 주요한 현장이 있을 때는 기동대처럼 해 가지고 현장에 가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저희가 주요한 노사분규 현장 거기의 교섭을 지도해야 될 때는 교섭을 중간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마는 이 문제는 공단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고 그래서 전담 감독관이 거기 가서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에도 담당감독관, 과장, 소장들이 나가서 직접……

○**金文洙委員**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국회에까지 주요현안으로 보고케 될 정도로 중대한 분규현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3개 중의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3개 정도쯤 되는 이러한 주요한 분류사업장에 노동부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특별하게 기존의 일상적 감독관이 나가는 것 이외에 노동부 본부차원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예산을 밀어주든지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조정하는 그런 특별한 팀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롯데고 의료공단이고 또 금융노조고 일체 그런 것을 보내가지고 기동반을 보내서 파악케 하는 특별한 반이 없네요?

○**委員長 劉容泰**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빨리 답변을 해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해야지……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특별한 경우에 본부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롯데호텔같이 본부에서 조정담당관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金文洙委員** 한 명 가시고?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저희 노동부에서 이런 데 많은 인원이 나가서……

○**金文洙委員** 많은 적든 간에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한 적이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아니,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없네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담당지역 소장, 과장 그리고 담당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현장소장에게만 맡겨두고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면서 특별한 조정관이든지 차관이든지 실장이든지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중앙차원에서 대책반이 없다 이것이네요?

○**李相洙委員** 이따가 따지기로 하고 다음에 근로감독관이 나갔다는데 그 보고서 같은 것 제출했습니까?

보고서 있으면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있었던 감독관들의 보고서 일체를 사본으로 보내주세요. 현장에 나갔던 근로

감독관의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기 때문에 동향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을 좀 봅시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력 투입경위를 보고드리면 6월30일 15시부터 노조원 1,600명이 공단건물 내로 이동해서 점거를 했고 20시경에 노조원 50여명이 6층 이사장 부속실에 난입해서 이사장과 임원들을 협박·감금하며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22시경 공단측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력 투입이 임박해지자 노조위원장이 간부직원 앞에서 이사장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바 있고 6월30일 23시경 경찰기동대 150명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 0시30분 경찰 20개 중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새벽 2시45분에 현장에 투입되었고 3시03분경에 노조간부 등 농성노조원 1,606명이 연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3일 체포영장 발부자 38명 중에 20명이 검거되었고 이중 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 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금융계의 파업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계 파업관련 동향을 보고드리면 한국노총은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후 전개될 금융개편과정에서의 인력감축을 우려해서 일반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7월11일 총파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1일 총파업 진군대회를 보라매공원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여 개최한 바 있고 7월3일부터 7월6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7월6일 현재 중간 개표결과 83.5%가 찬성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7월3일 전산업무담당 조합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30여명은 참석했으나 파업참여문제에 대해 찬반 이견으로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7월4일 금융노련위원장 등이 총파업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파업을 강행할 방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10일 총파업 전야제가 예정되어 있고 7월11일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

입니다.

○**金文洙委員** 금융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위원장, 재경부장관 그리고 금융노련 위원장하고 같이 공개적인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노사정위원장 주최로, 그렇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이 회의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 회의결과요?

○**金文洙委員** 동향 중의 최신동향인데……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이렇게 되면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것부터 하고 최근의 동향을 받았으면 이것을 끝내 놓고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金文洙委員** 최근동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보고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2시55분에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 14시에 은행연합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고 그래서 의견접근에 실패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전혀 진전은 없었나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상호의 입장을 개진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자리에는 노동부에서 누가 나가 있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노동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金文洙委員**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과장이 나가서 상황을 체크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 하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전망을 보고드리면 금융노조는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참가 은행별로 노조원 비율이 80% 이상을 상회하여 금융업무 마비는 물론 전산망 장악 시에 금융대란이 우려될 것이며 구조조정 저지목적의 파업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신분문제와 관련되어 참여도와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

히 한국노총이 6월1일 계획했던 총파업을 유보한 후 새로운 집행부가 시도하는 첫 파업이기 때문에 조직력 과시 측면에서도 전면지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전력, 철도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조들의 참여와 민주노총이 임금교섭 중인 대형사업장을 가세시킬 경우 파급효과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14페이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정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위 위원장을 주 창구로 해서 금융노조측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은행회관에서 노·정 공개대화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한시적 노·정 간담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멤버는 재경부, 금감위, 한국노총, 금융노련 그리고 저희 노동부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금융개혁 추진방안,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한시적 노·정간담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金文洙委員** 지금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와는 별개로 이런 간담회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노사정위원회하고는 별개의 구체적인 사업장의 구체적 사항을 하나하나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로서 현재 한국노총측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큰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하고 작은 것은 노동부하고 이 간담회 장소에서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전체적인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에 금융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만 해놓은 것이 언제쯤부터 될 것인지는 아직 전혀 예측할 수 없네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정부 내에서는 조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위원장에게 어저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놓고 한국노총측에 노동계에



대해서 조율을 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朴仁相委員** 장관님, 이 내용은 金文洙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재정부, 금감위, 한국노총, 노동부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금융노조 파업이 있으니까 응급조치로 오늘 보고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금융노조는 금감위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이 구조는 금융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조이지 다른 분야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도 이것을 받을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지 않습니다.

○**朴仁相委員**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금융노련 분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부, 금감위가 들어가 있지 다른 분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지금 금융은 재정부, 금감위가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노동부는 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협상 상대방이 아닙니다.

○**朴仁相委員**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장이 주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구는 오늘 응급조치로 보고하는 기구지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응급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틀을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朴仁相委員**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 앞에 롯데호텔 노사분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분규 이 내용이 공권력 투입이다 음주진압이다, 그 다음에 임신부에게 발길질 해가지고 유산시켰다 해서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노동부장관님이 솔선수범해 앞장서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놓고 이렇게 구성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오늘 큰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고 금융권만 대비책을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금융도 지금 한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그러면 경찰의 투입경위는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고…… 오늘 보고하는 내용도 사실 노동부가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고 경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한다고 하면 그 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이 경찰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쪽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폭행내용은 어떻게…… 지금 폭행내용도 보면 사용자측이 폭행 당한 것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 내용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잖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경찰이 투입된 경위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이 어떠한 경위로 투입되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물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저희는 이 보고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긴요성이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뜬 것을 하나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인터넷에 뜬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朴仁相委員** 저도 여기에 가져 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서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한 쪽만 비호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동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으로서는 노동부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뛰어 들어서 같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노동자들의 소망이었고 되고 안 되고는 뒷문제라도 그래도 뛰어 들어서 어떻게 정립해 주어야 되고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간추려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오늘 보고한 것 하고 신문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사실 이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덮어놓고 롯데 문제는 어디가 잘못 되었다, 보험 문제는 어디가 잘못 되어졌다 그러면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측, 사용자측 불러놓고 진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일하기에도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쳐다보니까 너무 허공에 떠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 하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산망, 입·출금 업무 등 파업에 대비한 주요시설 보호 및 필수업무 유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파업은행의 조합원 참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파업예상 금융기관 본·지점 사업장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서 파업참여를 최소화하고 금융기관 본점 관할 사무소는 기관장이 직접 노조에 출장해서 면담 지도하겠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은행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이므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장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파업은행의 조합원참가 최소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노동부 업무중의 하나입니까?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합법적인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노조원들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노동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파업이 일어날 때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金文洙委員 현재까지는 불법이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러니까 현재 하려고 하는 파업은 그것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파업입니다. 임단협 무슨 근로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철폐, 판치 금융 무슨 법 이런 것이기 때문에……

○金文洙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법파업이면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노동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오늘 같은 때도 바로 노사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또 장관들끼리 만나는데 위원장하고 만나는데 노동부장관이 당연히 참석해서 이것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불법파업이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불법파업이 일어나면 그 사람 숫자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이…… 여기 역할은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어디에 누가 나가고 면담을 어떻게 하고 지도를 어떻게 한다. 참으로 년센스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먼저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金文洙委員 하기는, 안 하는데 뭐……

○委員長 劉容泰 자, 됐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시간이 지금 5시입니다.

아침에 회의 전에 여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5시 반에 이 회의를 그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후 행사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해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한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간략하게 요령껏 줄여서 요점 중심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韓 위원님 말씀하세요.

○韓明淑委員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선 파업사태와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과 공권력 투입 그리고 금융노련의 파업예고 등 최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과연 노동행정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또 나아가서 노동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부는 이미 조정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노사관계 해결은 이제 경찰청으로 그 권한이 넘어가 버린 실정입니다.

국내 최대 호텔인 롯데호텔에서 상습적인 성희롱이 벌어졌고 그 사례만도 11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도 노동부는 그 실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강제합병과 인원감축은 없다는 장관의 공언에도, 엄연히 재정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모든 문제를 대통령하고만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행정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쯤 노동부장관께서도 노동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과연 노동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는 롯데호텔 사건을 예를 들어서 노동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롯데호텔노조가 5월19일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으나 서울지노위는 교섭미진이라는 토를 달고 이를 반려해 버린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또한 노동조합이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사분규가 악화된 배경에는 언제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반려라는 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요. 적극적으로 교섭을 붙이고 조정을 이끌어야 할 노동부가, 그 소속기관이 오히려 조정책무를 거부한 것입니다.

노동법 어느 조항에도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에는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49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지도 않았고 노동쟁의행위를 예방하지도 않았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지도 못한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서울지노위는 6월8일에 사용자 측에서 제출한 중재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방 중재신청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결국 롯데호텔노조는 불법파업이라는 외길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 노조의 조정신청은 반려하고 사용자의 중재신청은 받아들였는지 과연 이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처사인지 노동부가 지향하는 신노사문화가 바로 이런 것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롯데호텔 노조파업과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사태 당시에 노동부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상세히 밝혀 주시고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아까 金文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자체가 조사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의 분규과정에서 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역할이 과연 공정하고 신속했는지,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맞게 노동행정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자체가 한 조사를 말씀해 주실 때 특히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서 임신부 문제, 여성노동자

들의 피해상황 같은 것을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융노련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을 가장 잘 아는 부처가 바로 노동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부가 직접 지금이라도 나서서 대화를 유도하고 실제 조정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집단소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대책마련을 위한 여성계와 노동계의 엇그제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9년2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식회사 대원의 77명의 성추행 고소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롯데호텔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노동조합의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382명 중에 70%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성희롱 피해자 183명이 집단소송을 내려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롯데호텔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텔이고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어느 사업장 보다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성희롱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여서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70%가 넘는 여성근로자가 성희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충격입니다.

올 1월, 어느 한 여성단체에서 1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업장의 64.4%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5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76.5%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행정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노동부가 상당히 자성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여성근로자 전담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고 이 분들이 여타업무와 혼재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성희롱 예방대책이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가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측은 99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결과를 서울지방노동청에 보고한 바 있으나 노동부 측의 정밀조사에 의하면 약 450여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제출하는 예방교육 실시결과보고서만 가지고는 정확한 실태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의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롯데호텔을 비롯한 호텔 및 유통업계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과 각각의 교육대상 및 참여율, 교육방법 등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예방교육 이행관련 감독여부와 그 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5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실시해서 노동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대규모 사업장부터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정밀한 설문조사 등을 노동부에서 직접 실시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이 183명의 전무후무한 집단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유통업계나 호텔업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이러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할 때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다른 유통업계에도 전문적인 실사를 해서 이러한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사와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료들을

주시고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全在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委員** 앞서 질의한 韓明淑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롯데호텔사건은 사용자가 진작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월30일 단체협약 만료일에 앞서서 노동조합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용자와 교섭을 원했습니다. 3월22일 노조는 사측에 교섭자료를 요청하고 28일에 상견례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3월부터 즐기차게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동조합의 그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교섭을 계속 회피했었습니다. 5월12일에서야 비로소 실무접촉을 통해서 화요일, 목요일 교섭키로 했었고 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5월25일에 이르러서야 1차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요구를 했는데 5월25일에 이르러서야 1차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교섭을 할 의지가 얼마나 없었고 또 얼마나 교섭에 임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부당노동행위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善政** 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노조에서 그와 같이 즐기찬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저희 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고발해 주었으면 빨리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6월29일 공권력 진입 당시에 연행되었던 노조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노조의 파업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서 비롯되어 기각한다.”고 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때까지도 노동부는 모르고 있다가 앞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기를 놓치는 노동부의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실제로 실무교섭이 이루어진 것이 5월입니다. 지금 全在姬 위원님께서는 그 이전 3월의 상황을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노사간에 본격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진 이후 그 다음 파업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수차례 노사 양측에 대해서 성실교섭하도록 적극 지도한 바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교섭해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그간의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정말 노동조합과 열린 마음으로 회사의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협조를 구하고 교섭했다라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교섭불성실이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결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당에서 노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면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행사부장관에게 여쭙어 보았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간의 갈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면 장관님께서 롯데호텔의 경우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투입된 직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全在姬委員**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새벽 2시인가 그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그 전에 행사부장관과 같이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롯데호텔 노사분규문제에 대해서는 행사부장관, 법무부장관과 더불어서 수차 상의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바는 없고 여하튼 조기에 이분규가 합의, 타결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서로 걱정을 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그 당시에 팽팽했고 단협에 의해서

일방적이든 어쨌든 중재재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사측이 우선 이 불법파업 상태를 풀기 전에는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애로를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행사부장관과 공권력 투입에 관한 협의는 그때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면 장관님이 롯데호텔 근로자 파업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어떤 내용이든 마지막으로 협의한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공권력 투입하기 바로 전날 전화로 서로 상의했습니다.

○**全在姬委員**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사용주가, 지금 현재 사장이 재량권이 좀 없어서, 말하자면 고용사장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어서 노조와 더불어서 교섭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사장하고 별도로 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정 사장으로서 재량권이 너무 없어서 그런다면 회장에게 재량권을 좀 부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요청을 할 생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全在姬委員** 사장께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사장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비서실이고 뭐고 전부 다 피신하고 아무도 없어서 이래저래 수소문해서 어쨌든 롯데호텔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사장을 찾아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부탁한다고 하니까 한 한 시간 뒤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서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롯데호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아주 모든 재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실히 교섭을 해서 할테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입니다.

○**全在姬委員** 그렇다면 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금 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고 노동조합도 그 교섭으로 타결을 보기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일부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으로 타결되는 것이 후유증이 없을테니까 경찰력을 선불리 투입하지 말고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부탁한 것은 없고요, 그 사장과 통화하면서 바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6시부터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서울지방노동청장을 보낼테니 함께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 교섭에 잘 임해 주시오 했더니 하여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의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全在姬委員** 이번 공권력 진입에는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관청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진작에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자초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노사가 그것을 타결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것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공권력이 진입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나 하면 그 진입과정에서 여성,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저항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인권탄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서 확인한 바로는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 전날 통화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몇천 명이 있는 근로자에게 몇천 명이 되는 경찰관이 투입될 때는 부처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문제는 분명히 노동부장관의 소관입니다. 노동부장관의 소관에 대해서 경찰력이 투입될 때는 그 투입 시점에 대해서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부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협의이고 통합이고 조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각기 따로 논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든 어느 장관이든 간여할 일이 못됩니다. 부처간에 서로 역할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합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느 현장에 공권력, 소위 경찰력을 투입하는 문제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간에 경찰을 관장하는 행자부장관 또는 경찰청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관계 현장이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

이신데 지금까지 그와 같은 협의의 관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과정은 긴급하거나 현장에서의 불법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간에 현장지휘체계 속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지 또 관련기관에 사전협의하고 할 그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통신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1,000명이 넘는 조합원에 대한 공권력 진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는 장관에게 협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委員長 劉容泰** 시간관계상 좀……

○**全在姬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그것을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공권력에 장관님이 제어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서 확인한 바로는 장관님께서 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권력 투입을 좀 미루어 주고 협의로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공권력 투입을 지연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행정자치부장관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노사문제가 이렇게 공권력이 진입된 이후에 그 파장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인데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은 당장 장관님께서, 설사 불법이 있더라도 교섭이 진행 중이고 누구라도 현장에 나가서 내가 직접 나가서라도 그것을 타결짓도록 할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더라면 옳은 일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이것은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뭔가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경찰이 현장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장관님이 공권력 투입 전에 노사협상으로 타결짓도록 직접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설령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투입하지 않도록 장관님이 제어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文洙 위원, 1분내로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피가 나오는 것 보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이것은 ……

(사진을 들어 보이며)

롯데호텔에서 맞아 가지고 끌려 나오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 내가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것이 다 부상당한 것인데 누가 부상당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다 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이것은……

(또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보입니다.

○金文洙委員 이런 것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장관님이 지금 보고하신 이 보고서 5쪽을 보면 노조원들이 폭행한 것만 나와 있지, 노조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이것은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게 노조원들이 맞아 가지고 저한테 진단서가 와 있는 것이 200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누구인지 이름도 다 나오고 누가 폭행을 당했고 누가 다쳤는지 하는 것이 다 나오는데 노동부장관이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상 허위보고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부 자체에서 조사하지 않고 경찰의 보고를 그냥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해 주시고 새로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마침 여기에 노조 사무국장이 저기 뒤에 와 있습니다.

이남경 사무국장, 한 번 일어서 보시지요.

(이남경 사무국장 뒤에서 일어섬)

장관님께서 롯데호텔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노동부의 오늘 보고서하고 뭐가 다른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차이나는 점을 다음 상임위원회때 새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善政 예.

○金文洙委員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와 있는데 금융노조나…… 이런 롯데호텔도 사실 국제적인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노동부가 위기를 관리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 또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지도 없고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대목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도덕성, 폭력성, 민주성의 문제 또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피 ‘노동자들 항상 사랑한다’고 그러고 ‘노동전문가’라고 자처하고 계시고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이 느끼는 배반감은 더 큰 것입니다.

저는 과거 70년초부터 30년동안 노동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맞아도 보고 터져도 봤는데 이렇게 이만큼 많은 폭력이 행사된 적이 없는데 제가 알아보니가 술개부대, 대테러진압부대……

○委員長 劉容泰 金文洙 위원님, 金文洙 위원님!

○金文洙委員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委員長 劉容泰 왜냐하면 5시반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 이것을 안 지켜주면 피차간에 낭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18일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金文洙委員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하는데 여야 간사간에 합의도 됐고 노동부의 여러 가지 보고가 현실에 부합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현실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롯데호텔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으므로 롯데호텔노동조합의 이남경 사무국장과 장성원 사장을 7월18일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국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지금 金文洙 위원께서 롯데호텔의 노사대표를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金文洙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분이 계시므로 증인출석 동의는 일단 국회법 제89조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金文洙 위원 발의에 의해서 동의를 성립이 됐고 또 취지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의 대표 장성원 사장 그리고 롯데호텔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남경 이 두 사람을 7월18일 본 상임위원회 10시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증언을 듣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증인으로 채택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18일 10시에 본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金容鈞·金燦于·孟亨奎·朴世煥·朴承國·朴柱千·朴昌達·朴燻太·孫泰仁·孫鶴圭·孫希姪·申樂均·吳世勳·尹汝雋·李熾淑·李元昌·李源炯·李允盛·李在五·全在姬·鄭文和·鄭寅鳳·曹雄奎·曹正茂·朱鎮吁·洪思德 議員의 104인 발의)

이상 3건 6월29일자 회부됨

○ 審査期間指定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월29일 정부제출)

6월30일자 회부됨

7월5일, 審査期間을 7월8일까지로 指定함

○ 出席委員

金樂冀	金文洙	朴仁相	朴赫圭
申溪輪	吳世勳	劉容泰	李相洙
李柱榮	李浩雄	全在姬	鄭宇澤
鄭均桓	韓明淑	洪思德	

○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姜長錫
전문위원	李昌熙

○ 政府側參席者

노동부		
장관	崔善政	
차관	金相男	
기획관리실장	文亨男	
고용정책실장	金在英	
노동국장	安鍾根	
근로기준국장	鄭秉錫	
산업안전국장	朴吉祥	
근로여성정책국장직무대리	申 洺	
고용총괄심의관	金 聖中	
능력개발심의관	宋智泰	
노사협력관	徐萬植	
국제협력관	崔炳勳	

【報告事項】

○ 議案回附

勤勞基準法중개정법률안(金貞淑의원 대표발의)

雇傭保險法중개정법률안(金貞淑의원 대표발의)

男女雇傭平等法中改正法律案(金貞淑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 6월29일 金貞淑·姜昌成·金樂冀·